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3. 6. 4 ~ 2023. 6. 24 제283호

심각한 십대 강력범죄·학교 폭력... 학생들의 관계회복이 우선돼야

우리나라 십대 청소년들이 마약, 조폭, 성폭행, 특수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의 주범으로 떠올라 학교폭력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23일 여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한 10대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을, 공범 B(19)씨와 C(19)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를 받는 D(19)씨도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처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간 여러 차례 10대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고 피해자 신

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0대들의 특수절도 또한 심각하다. 5월 14일 고등학생 2명이 새벽 시간대 제주 시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앞서 다른 도내 중·고등학생 7명은 4월 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안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현금과 지갑 등을 털어오다 검거됐다.

이 같은 청소년 폭력과 관련, 지난 4월 충북연구원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공격성이 높아지고 또래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향도 크다는 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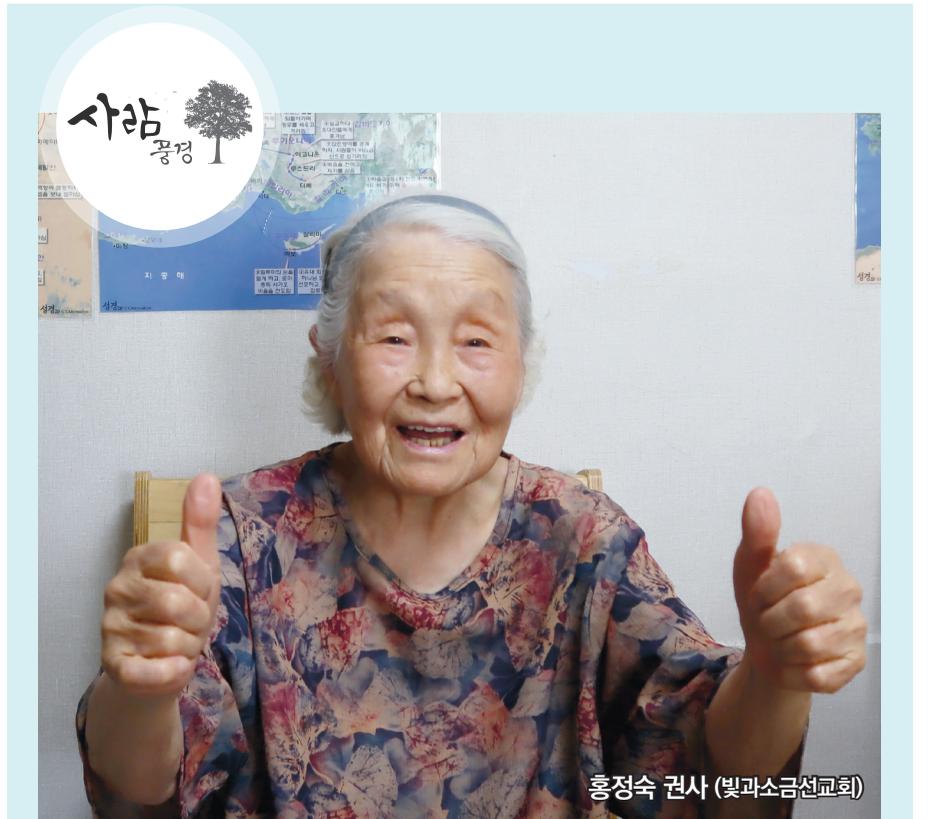
또한 교육부는 지난 4월,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와 피

해학생중심의 보호조치,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운영,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들은 벌칙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올 초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아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과정의 경험으로 서로 존중을 배워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갈등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교육적 해결을 함께 배워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잃은 부모가 설립한 푸르나 무재단은 학생인정 함양과 학교중심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 피해자 중심지원정책의 10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GNPNEWS]



홍정숙 권사 (빛과소금선교회)

“예수 십자가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가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땀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

게 우리 죄를 고백해야 죄가 없어져서 천국 가요.” “예수님 믿어도 빠짐없이 전도지를 들고 나서는 홍정숙 권사를 만났다. 94세의 나이가 믿

기지 않을 정도로 또렷한 발음으로 쏟아내는 홍 권사의 구령의 열정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필자의 가슴을 뛰게 했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67)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내가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라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시편 2:7~9)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장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교회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은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너희에

게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수준의 능력이 아니라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려 부수듯이 하는 그런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과 강권적인 권세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려 부수듯 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 주변의 많은 목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이 정말 쥐어짜듯이 어렵고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인지, 우리가 역지로 하는 건지 백날 해봤자 말짱도

루묵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절대 바꾸지 않는 태도가 있는데 기도 안하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미나에 돌아다니고, 회의할 시간은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모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결과는 정확히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구하지 않으면 못 주십니다. 열방을



일러스트=김경선

회복하고 열방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GNPNEWS] 받는 이 일은 복음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시~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포토뉴스

아픔 딛고 일어난 어린이들의 손동작



▲ 시에라리온에서 만난 아이들. 제공: WMM

카메라 앞에서 다양한 손 동작으로 포즈를 취한 시에라리온 아이들. 한결같이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이들을 바라보면 절로 미소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그렇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손발이 잘려나갔던 아픔의 역사가 있었다. '시에라리온의 별'로 불린 다이아몬드의 값어치가 알려지면서 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피의 다이아몬드(Blood Diamond) 사태를 가져왔다. 다이아몬드를 두고 일어난 내전 때문에 반군 혁명 연합전선(RUF)이 공포 전술로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자들의 손발을 절단했기 때문이다. 그 아픔을 뒤로한 채 누가 저들의 아픔을 어무만져 주고 기쁨을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 저들 속 깊이 배인 어두움을 누가 밝혀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이를

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들의 눈물과 고통을, 깊은 탄식과 애통에서 건져주시리라. 십자가의 보혈이 전해지기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계 21:4) [GNPNEWS]

'성별은 두 가지뿐' 적힌 티셔츠 입은 중학생... 처벌 받아

'성별은 두 가지뿐이다.'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중학생 소년의 부모가 미국 매사추세츠 미들보러 소재 학교 교직원들을 고소할 계획이다. 페이스와이어에 따르면, 12살인 리암 모리슨(Liam Morrison)은 3월 말 7학년 교실에서 쫓겨나면서, 셔츠를 벗도록 명령받았다. 그리고 5월 5일, 그는 '성별이 검열된다.'고 적힌 다른 티셔츠를 입었다가 다시 한 번 옷을 갈아입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모리슨은 학교 교육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옷을 갈아입어 달라는 학교 교직원의 요구가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셔츠가 보호계층(protected class)을 겨냥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 보호계층이 누구인가? 그들의 감정이 내 권리보다 더 중요한가? 학교 곳곳에 걸린 프라이드 깃발과 다양성 포스터를 봐도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자신의 신념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나도 정치적 의견이 있고

그 의견들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학교에서도 이 권리를 수정헌법 제1조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모리슨은 누구의 감정도 상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그는 단지 오늘날의 문화적 분위기에서 갈수록 분열을 일으키는 주제인 성(sexuality)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전달하는 티셔츠를 입고 싶을 뿐이었다. 모리슨과 그의 가족을 대변하고 있는 매사추세츠 가족연구소(Massachusetts Family Institute) 소속 변호사인 샘 화이트링(Sam Whiting)은 "우리는 이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며 "학생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옹호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일련의 상황(fact pattern)은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암은 학교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의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모리슨은 성소수자로 밝혀질 수 있는 누구도 표적으로 삼거나 괴



▲ 리암 모리슨(12세). 출처: Fox News 캡처

롭힐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단순히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모리슨은 "언제나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서 싸우고,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막지 못하게 하라."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당신이 믿어도 되는 것을 못 믿게 만들려는 사람이 많다. (우리 믿음에 대한 권리가) 우리로부터 빼앗기고 있다. 또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권리도 빼앗기고 있다."고 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영국, 무신론자 급증... 80년대 이후 기록적 수준

킹스칼리지 런던 정책연구소가 지난 19일 영국인들의 삶에서 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급증해 1980년대 이후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22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설문조사 결과, 신을 믿는다고 답한 이들은 75%(1981년)에서 49%(2022년)로 급격히 줄었다. 동시에 무신론자 수는 4%에서 21%로 급증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영국의 교만과 반역을 제하여 주옵소서. 한때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나라의 영혼들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거룩한 예수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민주 콩고, 폭력 사태 속 성범죄 횡행

유엔아동기금에 따르면 반군과 정부군의 충돌 등 폭력 사태가 이어지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노스키부주에서 올해 1분기 동안 보고된 성범죄 건수가 3만 8000건이라고 지난 20일 로이터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전했다. 실제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MSF)는 4월 17~30일 민주 콩고 동부 3곳에서 치료한 성범죄 피해 여성이 67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서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도 죄 짓기를 서슴지 않는 모순된 우리의 존재를 불쌍히 여기사 복음을 들려주옵소서. 그리하여 참 진리이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고교생이 훈계하는 교사 밀쳐 12주 상해

고교생이 훈계하는 교사를 밀쳐 넘어뜨려 교사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지난 2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B 교사가 다두고 있는 A 군과 친구를 교무실로 데려가 경위서를 쓰게 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교무실을 나가려던 A 군을 B 교사가 막으려다 A 군에게 밀려 넘어졌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긴다는 진리들이 땅의 다음세대들이 깨닫게 하소서. 그릇 가는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해 이 땅의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주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3년 6월 5일 ~ 2023년 6월 24일

- 6월 5일 ~ 6월 10일**
 -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문**)010-6687-9266, 6.5(0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6.5~7(13-17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6.5~9(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6.5~10(10-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선교회(권**)010-7754-1726, 6.7(11-15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6.8(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그 외 9교회 진행중.
- 6월 12일 ~ 6월 17일**
 - 6.13(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6.13,15~17(20-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6.14(11-15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6.14,16(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6.15(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6.16(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6.17(09-21시) ▶경남 진영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 외 8교회 진행중.
- 6월 19일 ~ 6월 24일**
 -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6.19~24(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6.21(20시)~22(20시) ▶경기 파주 / 갈릴리교회(이**)010-3869-3417, 6.21~23(10-17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최**)010-8373-1273, 6.22(18시)~24(18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이**)010-3684-6673, 6.23(14-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6.24(00-24시) ▶울산 북구 / 우정교회(박**)010-8308-4628, 그 외 11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나이지리아, 빈곤·부패 등 사회문제에 교회가 역할해야

빈곤은 나이지리아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많은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빈곤 수준 이하로 살고 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여러 번에 걸쳐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18만 개 이상의 교회로 부흥한 나이지리아 교회는 빈곤 완화와 지역사회 개발의 동력으로서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빈곤과 아동교육 문제 심각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최대 석유 생산국이자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영향 이전에도 최소 6000만 명의 나이지리아인이 하루에 2.1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년 11월 나이지리아 정부의 조사 발표에서도 약 1억 3300만 명(인구의 63%)이 소득과 주택, 의료, 교육 등 다차원적 빈곤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 지표를 반영하듯 나이지리아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민자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 영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은 나이지리아인의 수는 2019년 이후 4배가 증가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IT 전문가 등의 이민자가 많아지면서 '두뇌 유출'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나이지리아의학협회(NMA)는 적어도 50명의 의사들이 해외에서 일하기 위해 매주 나이지리아를 떠난다고 말할 정도다. 또한 유엔은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동의 수가 작년 174만 명에서 2023년에는 2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분쟁, 질병, 재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초등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육 여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교실 23만 개가 부족한 상황이다. 나이지리아 교육부는 'SBM 인텔리전스'의 통계를 참고로 나이지리아의 학교 밖 아동의 수를 1230만 명으로 추산했고, 유네스코(UNESCO)는 현재 그 수가 20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부에 위치한 소코토주(州)에서 20만 5000명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플래토주 20만 명, 카노주 42만 명, 아다마와주 43만 7000명, 케비주 81만 4925명, 보르노주에서도 학교 밖 어린이가 33만 389명으로 조사됐다. 나이지리아 고아원운영자협회(ASOHON)의 라고스 지부장인 알하지 도순무(Alhaji Dosunmu)는 고아원보다 고아원 밖에 있는 고아가 훨씬 더 많다면서 그들은 부모나 보호자 없이 술, 마약, 흡연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한다.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

2022년 말, 아프로바로미터(Afrobarometer)가 나이지리아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응답자의 90%가 나이지리아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2020년 부정평가는 69%에 머물렀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년 말에 89%까지 상승했다. 2020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나이지리아는 179개국 중 149위를 기록했고, 바이에로카노대학(Bayero University Kano)의 반부패프로젝트 연구 결과에서도 나이지리아인의 70%가 국가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가장 부패한 기관으로 지목했다.



출처: Muhammad-taha Ibrahim on Unsplash

해 독립 이후 최소 58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프로그램 관리자였던 음바말루(Cynthia Mbamalu) 박사는 높은 청년 실업률(42%)과 불완전 고용률(21%)로 인해 일자리를 얻기 힘든 청년들은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례가 됐다고 말한다. 2019년 12월 국가통계국의 조사에서도 젊은이들 중 최소 60%가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 라디오(Women Radio)의 창립자인 올롤로우(Mayowa Olulowo)는 나이지리아의 만연한 부패 관행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그녀는 나이지리아에서 취업 기회와 의료 서비스, 공직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지불하거나 성적 학대를 경험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라고 했다.

빈곤 완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

에누구(Enugu)주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대학교의 응케치(Onah Nkechi) 교수는 지금까지 나이지리아의 교회들은 많은 학교를 세우고 장학금 제도를 마련했고, 병원과 고아원, 양로원 등을 세워 연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왔다

성들에게는 무료 암검진도 실시했다. 수도 아부자(Abuja)에 있는 대형 교회인 구속된성도교회(RCCG)도 엑셀자선재단(Excel Charity Foundation)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교육, 약물 재활, 구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아프리카 전역으로 사역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아남브라(Anambra)주 오그바루(Ogbaru) 지역에서 오크포코공동체(Okpoko community)의 연합 사역과 다양한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지역 내 여러 교파에 소속된 교회들은 최우선으로 초등학교를 설립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과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2022년부터는 지역 주민 20명이 계속해서 소규모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전식 대출 제도도 마련했다.

의료 부분에서도 교회의 역할은 컸다. 전국신앙지도자협회(NINERELA)는 크리스천에이드(Christian Aid)와 협력하여 에이즈 감염환자 340만 명의 치료와 재활을 돕고 있고,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에서 6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에이즈로 인한 차별과 낙인을 감소시키는 일에 집중했다. 2018년 농촌 보건 향상을 위해 타라바(Tabara)주에 문을 연 잘링고 연합감리교회병원(Jalingo United Methodist Hospital)은 4년 동안 무슬림과 기독교인 모두에게 의료 혜택을 주면서 의술과 복음을 함께 나누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2020년 가톨릭 교회에서 전국의 425개 모든 의료 시설을 코로나 격리 센터로 제공했던 것은 나이지리아 사회 전반에 걸쳐 큰 귀감이 됐다.

아남브라주의 은남디-아지키웨대학교(Nnamdi-Azikiwe University)의 우체(O.C. Uche) 교수는 교회가 여러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활발히 해 왔지만 아직도 다루어야 할 지역이 많다고 말한다. 교회는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

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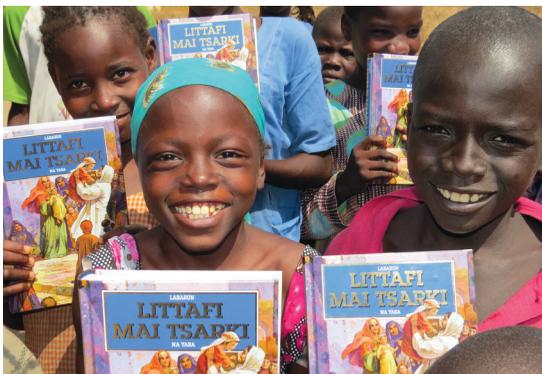
부패 척결과 지역사회 개발 동력으로서 교회

퓨리서치에서 세대변화에 대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인의 80%는 자신의 나라에서 종교의 역할이 20년 전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고, 74%는 인권 향상과 사회 전반에 걸쳐 종교적 역할이 증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듯 나이지리아의 부패 척결에 있어서도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라고스에 있는 RCCG가 주최한 킹덤서밋(Kingdom Summit) 2017에서 부통령 오신바조(Yemi Osinbajo)는 교회가 국가의 부패에 대해 말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면 국가의 부패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지리아그리스도교회(COCIN)의 총회장인 다티리(Dachollom Datiri) 목사는 조스(Jos)에서 열린 98차 총회에서 정부의 반부패 감시기관들이 흐름을 막는 대신 점점 더 부패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 모두가 부패와의 싸움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부자에 있는 베리타스대학(Veritas University)의 오누쿠바(M.C. Onukwuba) 교수는 모든 교회가 지역사회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그 영향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가난한 이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다루기 위해 농장 설립, 농촌 마을과 도시 연결, 의료나 인쇄, 오픈마켓 등 소규모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교회는 항상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켜 왔다. 나이지리아 교회를 중심으로 나이지리아 전역이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선교연구원 파발마플러스 2023년 5월호 참조) [GNPNEWS]



▲ 굶주린 아이에게 엄마가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보건 센터에서 긴급 식량을 먹고 있는 모습(좌). 출처: UNICEF/UN028425/Esiebo. 그림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난민촌의 나이지리아 아이들. 출처: Open Doors US



600만 명을 돕기 위해 13억 달러의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가난은 교육과 직결된다. 전 세계 아동의 7800만 명이 초등교육을 전혀 못 받는 상황에서 유니세프(UNICEF)가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빈곤층 가구에서 60% 이상의 아동이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는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청년들과 여성들에게 특히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1년 7월, YIAGA(Youth Initiative for Advocacy, Growth, and Advancement) 아프리카 지부는 나이지리아가 고질적인 부패로 인

고 말한다. 초교파 교회로 알려진 라고스종족교회(Tribe Lagos Church)는 2017년부터 소조생명재단(Sozo Life Foundation)을 통해 라고스주의 레키(Lekki) 안에 형성된 슬럼가에서 빈민 사역을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물품을 나눠주고, 여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며 주님 기다리는 홍정숙 권사 (빛과소금선교회)

• 1면에 이어

- 매일 전도 나가시기 힘들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다니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다가도 전도 다녀오면 치료가 돼요. 나이가 있으니까 안 아픈 데가 없지. 근데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또 치료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가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전도를 안 나가면 오히려 마음이 찝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라는 뜻으로 알고 나가요. 그리고 나가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전하는 것뿐이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저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오면 아픈데도 치료가 돼요”

-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귀기울여 듣나요?

“그거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수.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하는 거지. 내 생각 같아서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됐다고 하고 지나가고 할머니나 믿으라고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들이 알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 권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불교를 믿었어요. 우리 딸은 교회를 다녔어요. 나는 주일마다 딸에게 교회 가라고 깨웠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딸은 교회 가라고 깨워서 보내면서 자기는 왜 절에 다니냐고. 그러면 애는 애 믿음이고 나는 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안깨워 보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절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도 만나주셨으니 절에 가는 사람들도 만나주셔서 절에 못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돼요. ‘절에 가면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절에 가는 거 헌신짝 버리듯 내버리고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기도 해요.”

- 어떻게 교회에 나가게 되셨어요?



▲ 사랑하는 딸과 함께. © 복음기도신문

“딸의 기도로 그렇게 됐어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초사흘마다 절에 갔는데, 그때마다 딸이 주의 종을 모셔다가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내가 평화시장에서 옷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더 안돼더라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재수 부적을 쓰래요. 그래서 절에 가서 돈을 주고 부적을 써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평화시장에 새끼줄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평화시장에 불이 났던 거였어요. 뉴스를 들으려면 그때는 라디오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시장에 갔는데 불이 났다는 거예요. 장사 잘 되게 하려고 부적을 부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부적을 비벼서 찢어 버렸어요. ‘내가 다시는 안 믿는다. 알기는 개뿔 알아. 부적을 부치면 장사가 잘돼? 내가 다시는 안 믿어.’ 그랬지요.”

- 그렇게 해서 미신과는 담을 쌓게 되셨군요.

“가게를 못 들어가게 해놓았으니 집에 있었어요. 당시는 교통비도 없어서 나갈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목사님이 집으로 오셔서 교회에 가자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 같아요. 먼저 딸이 기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1972년도에 처음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에 나간 이후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교회에 갔더니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 가사가와 닿았어요. 그 가사대로 복을 받았어요. 몸이 아픈 것도 고침 받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벌어먹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다 먹여주셨어요. 이후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어느 날 찬송가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 신앙생활은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백여 명씩 됐어요. 그런데 장마 때만 수련회를 가게 돼요. 그때 밥을 하려고 불을 때야 됐는데, 나무가 다 젖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젖은 나무가 불이 잘 붙어. 밥을 하면 잘 되고. 남들도 그래요. 흥 집사가 밥하면 밥이 잘돼.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이 꿈에 가마솥이 걸려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밥 하는 사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마다 수련회 때 열심히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 전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전도 축제가 봄, 가을에 있었어요. 전도하고 싶어서 동네를 열심히 다니는데, 나을 듯 하면서도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수박을 한 통 사다 줬어요. 근데 수박은 먹고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노방 전도하고 싶은 맘을 주셔요. 그래서 사거리에 나가서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외치기만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크게 외치도록 해주셨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이 외치게 하셔. 그걸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매일 간간 거예요.”

- 전도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하루는 꿈에 하나님이 서울메트로라고 보여 주셔. 근데 서울메트



▲ 거리 전도를 시작하기 전, 동역자들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제공: 홍정숙 권사

로가 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철에 서울메트로라고 써 있더라구. 또 꿈에 567을 보여주셔. 그것도 뭔지도 몰랐어요. 내가 그 꿈이 뭔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노방 전도하라고. 한창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철에서 전도해 볼까?’ 하는 마음을 주세요. 전철이 들어오는 걸 보는데 서울메트로라고 썼어. ‘어머 이거네.’ 전철에서 칸칸이 다니면서 노방 전도하듯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들이 신고를 해요. 그러면 와서 못하게 해요. 그때는 벌금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무 차나 타고 다니다 보니 5호선을 타게 됐는데, 거기에 567이 있어요. ‘어머 이거네.’ 내가 알아서 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게 그때 알아진 거예요.”

- 주님이 또 어떻게 걸음을 인도 하셨어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셔요. 문득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었는데 ‘만병의 대의사시죠.’라고 했어요. 사흘 뒤에 똑같이 물어보셔서 저도 똑같

이 대답했어요. ‘그럼 됐다.’라는 마음을 주시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사실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몸 사리는 사람 같으면 전도를 안 나가겠죠. 나에게는 몸 사리는 마음이 없어요. 속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장을 잘라내고 이으면 되는데, 할머니는 약으로 고쳐봅시다.’ 하더라구. 그런데 병원에도 가고 싶지도 않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고백한대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병원에 안 보내셔요. 그때부터 병

원에 안 간 게 7년 정도 돼요. 만병의 대의사가 된다고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그럼 됐다.’ 하셨잖아요. 날 고쳐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견딜 만하게 해 주세요. 주님이 치료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 해야지.”

- 그렇게 육체도 회복시켜주시는 거군요. 지지 않고 전도를 하시는 모습에 도전을 많이 받으시나요?

“처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동네 남자 양반이 암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거길 가서 기도하라고 해요. 처음 한 번은 갔어요. 주인이 전도사님이 천국 갈 준비하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으니까 내가 힘이 없잖아요. 내가 이한테 와서 뭘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안 갔어요. 그런데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흰 모자를 씌워 주셨어요. 내가 큰 기와집에서 나오니까 자가용이 있는데, 자가용 운전수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 탔어요. 내가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때 최자실 목사님이 흰 옷에 흰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신유의 은사도 있었고. 내게도 하나님이 최자실 목사님 같은 사명을 주시려고 했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한 것이죠. 지금 왜 충성하느냐 하면, 옛날에 주신 사명을 그때 잘 몰라서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지옥 갈 사람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이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러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 주님의 마음이 권사님 마음에 부여된 것 같네요.

“옛것에는 청주에 가서 사흘 동안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집집마다 찾아갔는데 농번기여서 집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마침 한 집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딸은 천주교를 믿는데요. 내가 ‘예수 십자가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아줌마를 사랑하시니까 아줌마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했더니 그렇게 한대요. ‘나도 예수님 사랑할게요. 하나님 나를 사랑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고백하라고 알려주고 왔어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수 믿게 한 것이 마음이 와 닿더라고. 그렇게 영접했구나. 내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북한에 가서 전도하는 것처럼 지금 시골로 다니면서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가을이 돼서 농사를 하지 않을 때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요.”

- 지지거나 힘들 때는 없으셨어요?

“때론 힘들 때도 있지.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힘을 주시면 발걸음이 잘 떨어져요. 하나님이 내 생명 거들 때까지 해야죠. ‘오늘까지 전도하고 와서 저녁에 불러가세요.’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복음 마음껏 전하고 들어와서 저녁에 천국 가는 게 내 소원이야. 신문에 내보낼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영접 기도 시켰다면 마음이 좀 편할텐데, 그런 것도 없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실 것만 믿고 전하기만 했어요.”

-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말씀해주세요.

“복음 잘 전해서 복음 전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때가 돼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아버지 앞에 가는 거지.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기를 원해요.” [GNPNEWS]

Y.K.

Y.K.





나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선교사다”

랏야교회는 콰이강의 다리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 있다. 주변은 사탕수수, 카사바 등의 밭농사가 주를 이루며 소와 염소를 치는 농가가 있는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그래서 교회 사역하기에 힘든 지역이다. 매주 목요일 주변 지역에 전도하러 다니지만 사람 구경(?)하기 힘든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두 명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12년째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초창기는 미얀마 사람들을 붙여 주셔서 교인 절반이 미얀마인으로 채워졌다. 현재 이들은 모두 시내에 새로 개척한 미얀마인 교회로 옮겼다. 태국인도 제법 많이 모였지만 두 그룹이 또 다른 개척교회의 개척멤버가 되어 떠났다. 이제 남은 교인은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한 가정과 우리가 전도한 가정,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자매 가정 정도만 남아 있다. 지난날 교세에 비하면 20% 정도만 남은 셈이다. 지난해 4월까지 이런 일이 진행되었으니 실망도 컸고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다. 또 2024년이 되면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가정의 딸이 갓 짜나부리로 와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다. 그때 새로 개척할 교회

로 갈 것이기에 우리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한다. 1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 수고했는데 딸이 개척할 때 모든 가족을 이끌고 떠나겠다니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로 들렸다. 실망감과 자괴감이 나를 괴롭게 했다.



▲ 태국 방콕의 풍경. 출처: Steven Wilcox on Unsplash

그때 들은 음성이 있다.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배자가 한 명도 없는 곳에서 전도해서 예배자로 세우는 사람이 아닌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 아니던가? 마음을 추스

르고, 다시 주변 마을부터 차근차근 전도하며 새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변 마을의 아이들을 상대로 토요 학교를 시작했다. 영어와 태국어, 숙제 도와 주기 등을 할 테니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 달라고 요청

다. 그 가정의 남자아이 2명이 연말부터 교회에 나오고 있었다. 한 명은 초등학생, 또 한 명은 중학생이다. 제재소에 우리 성도가 살고 있어서 매주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3일에 아빠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고 멍하니 나를 바라보던 아이가 있었다. 아이

금은 픽업트럭에 제재소 아이들로 가득하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토요 학교의 한 학생이 올해 첫 주부터 교회에 오지 않았다. 아버지를 만나 그 이유를 물었다. 엄마가 바람이 나 아이들을 다 데리고 새 남자에게 갔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맥이 탁 풀렸다. 그때도 나 자신에게 말한다. ‘나는 선교사다.’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제법 많이 모였다. 운동회를 했기 때문이다. 운동회를 하면서 선물도 없었고, 상도 없었다. 그냥 과자와 간식을 차려 놓고 자유롭게 먹게 했다. 운동회를 마쳤는데 아이들이 집에 가지 않으려 했다.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다고 한다. 아이들이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한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GNPNEWS]

박정문(뜨인돌선교회), 빌리온선교회 2023 봄호에서 발췌

선교 현장

중국 인권운동가이자 가정교회 지도자 후스건 석방

2015년, 300여 명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구속돼

중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이자 가정교회 지도자인 후스건(胡石根) 장로가 지난 3월 말 중국 텐진(天津)의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다고 중국어문선교회가 발간하는 소식지 중국을주께로 5월호를 통해 전했다.

후스건 장로는 2015년 중국의 대대적인 인권운동가 탄압사건인 ‘709 대검거’ 작전을 통해 체포됐다. 중국 당국은 이 검거 작전을 통해 2015년 7월 9일 300여명에 달하는 인권운동가들을 구속했다. 당시 검거된 인권운동가들은 구금과 고문, 허위자백 강요 등에 시달려야 했고, 상당수 인권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 이후 2016년 8월에는 ‘전복죄(顛覆罪)’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고 5년간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대학 강사였던 후(胡) 장로는 체포되기 전 베이징의 여러 가정교회를 이끌었다. 당국은 그의 종교활동 및 외국단체와 인권변호사와 관계를 문제 삼아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즉 ‘불법종교활동’을 이용해 ‘국가정권 전복사상유포(散布顛覆國家政權思想)’를 했다는 것이다.

709사건의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후 장로는 처음에 약 5개월 동안 ‘지정된 거처에서 주거 감시’를 받았고, 이 기간에 심한 고문을 받았다. 잠을 재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면 부족으로 인해 심장발작 증상도 있었다.

가족들은 후 장로가 옥중에서 관상동맥성심질환을 앓아서 수차례 위독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당국은 보석 치료를 거듭 거부했다. 당국은 판결 전 구류 기간을 형기(刑期)와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지정 거처 주거 감시의 5개월은 징역 2개월 반에 불과하다. 그래서 후스건은 이번에 실질적으로 7년 8개월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다.

1994년 후스건은 텐안문(天安門) 사건을 공개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반혁명 집단을 조직하고 주도한 죄’와 ‘반혁명 선전선동

했다. 요청이 있던 토요일부터 부모들이 오토바이에 자녀를 태워서 교회로 데리고 와 주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일까지 연결되어 주일에는 작은 활동과 더불어 성경공부(어린이 예배)를 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전도지를 나누며 전도할 때 염소 치는 가정을 만났

들을 태우러 가면 따라오고 싶은 눈치였다. 우리 교회 아이가 재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물어서 당연히 같이 갈 수 있다며 태우고 왔다. 그 아이를 우리 교회에서 하룻밤 재우기도 하고 이발소에 데려가서 이발도 해주었다. 그 다음 주에는 함께 사는 형들을 데리고 왔다. 지



▲ 후스건 장로. 출처: rfa.org 캡처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옥중에서 고문을 당했다. 16년 이상 복역하다가 건강 악화로 2008년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됐던 것.

유엔 여성 지위 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의 수석 집행관 스콧 바우어는 “CSW는 후스건 장로의 석방을 받으면서도 그를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24년 동안 떨어져 지내게 한 심각한 사법적 불공정을 규탄한다. 이 모든 것은 집회·결사·종교신앙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 획득을 위한 그

의 평화적인 활동의 결과이다. 지난 수십 년간 후 장로는 중국 인민의 존엄과 복지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며,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치렀다. 우리는 중국 당국에 후 장로가 형기를 마치고 풀려난 뒤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거처를 지정하고 거주를 감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가정교회를 포함한 독립 종교 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GNPNEWS]



복음의 능력

영적인 보일러를 가동하라

겨울에 교회의 난방용 보일러를 꺼보라. 교회는 단정하고 깨끗해 보이겠지만 몹시 추울 것이다. 교회의 기도실은 영적인 보일러와 같다. 사람들이 기도실을 찾지 않는다면 교회의 거룩한 열정은 식을 것이다. 열정이 식으면 능력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면 영적인 패배가 찾아온다. 지금의 교회는 성전의 문에서 구걸하는 앓은뱅이를 고쳐주지 못한다. 오히려 앓은뱅이가 되어버린 교회는 주님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세상에 구걸한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종종 사람들은 내게 병든 국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다. 나는 그런 기도를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나는 병든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교회가 치료되면 병든 우리나라도 치료될 것이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GNPNEWS]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라 (레오나드 레이븐힐)’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오직! 절대! 전부의 복음! (1)

영적 혼돈의 시대 한복판에서 진리를 굳게 붙잡아라

태풍 같은 자연환경으로 다가오는 외적인 어려움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도 정말 폭풍 같은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다.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고 주의 집중이 안 될 때 한 번씩 태풍이 휘몰아칠 때면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누구든지 두려움 앞에 직면하게 되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태풍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면 창문에 테이프도 붙여보면서 혹시 흔들리는 것은 없는지, 날아갈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된다. 평소 대강 대강 해놓은 것들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다.

내면 안에도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이다. 자연재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협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건 심령 안에 견딜 수 없는 격동이 일어날 때이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의지가 바닥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때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 여기저기에 늘어놓았던 것들이 폭풍의 시간을 한번 지나면 교통정리가 된다. 믿을 것인지 안믿을 것인지, 이게 의지할 것인지 아닌지 생각 없이 허망한 것들을 그렇게 붙들고 치열하게 씨름했는지 돌아보게 된다. 교통정리를 하면서 단단히 맺은 매고 버릴 것은 버리고, 혼돈돼 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세우는 데는 위기의 시간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갈라디아 교회도 뒤흔들었던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었다. 복음으로 변화된 갈라디아 교회는 혼돈의 과정을 겪으면서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내부의 공격들도 슬그머니 파고 들어와 혼돈시키고 흔들었다. 내적·외적인 폭풍 같은 이런 도전과 위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그때가 보통 강한 바람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태풍 같은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다.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들던 혼잡

하고 혼합되고 혼돈케 하는 어떠한 도전도 과감하게 진리의 입장에서 거부할 줄 알아야 한다. 폭풍 속에 휘말린 이 영적 혼돈의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중심,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진리를 굳게 붙잡아서 태풍에 휘말려 가지 않아야 한다. 세상의 태풍에 만 휘말리지 않는 게 아니라 영적인 폭풍에도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그 중심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라.

영적 폭풍에 휘말리지 말고 굳게 서서 증인으로 서라

폭풍과 태풍이 휘몰아치는 이 혼잡한 세상 한복판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절대 진리를 붙잡고 복음이 전부가 되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자로 서야 한다.

오직 절대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 바로 이 세대 한복판에서 최악의 폭풍 속에 있는 마지막 시대 속에서 평범과 보편이라는 말로 속



일러스트=이예원

이는 속임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부가 된 믿음으로 서야 한다. (2018년 8

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2023학년 헤브론원형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안내

헤브론원형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다음세대 선교사들의 행복한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세대 선교사들은 응답하십시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 모집 대상**
 - 2023학년 7월 기준, 초등학교 4학년(2013년생)부터 중학교 3학년(2008년생) 연령대의 학생. 단, 고등학교 1학년(2007년생)은 1년 하향지원 가능합니다.
 -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분명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자발적으로 본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
- 입학설명회**
 - 2023년 7월 1일(토) 오후 2시~5시, 장소는 「입학 설명회 참가 신청자」에게 개별 공지합니다.
 - 입학설명회 참가 접수 기간: 2023년 6월 5일(월)~2023년 6월 24일(토)
 - 참가신청은 이메일(hebronschool@hanmail.net)로 접수 바랍니다.
 - 입학설명회는 지원하는 학생과 양 부모님 중 한 분은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아래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 원서교부**
 -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만 교부합니다. (입학원서 전형료 5만원)
 - 원서접수기간: 2023년 7월 1일(토)~2023년 7월 21일(금) 소인까지 받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별도로 아래 문의처에 문의 바랍니다.)
- 입학전형 일정**
 - 1차 서류심사 및 1차 합격자 발표: 2023년 7월 29일(토)
 - 2차 'Camp, Go up to Hebron!': 2023년 7월 31일(월)~2023년 8월 4일(금) (Camp기간 중 면접과 시험이 포함됩니다.)
 - 2차 합격자 발표: 2023년 8월 5일(토)
 - 3차 최종면접: 2023년 8월 7일(월)~2023년 8월 9일(수) (2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2023년 8월 12일(토)
 - 2023년도 입학식: 2023년 8월 29일(화)
- 문의 및 접수처**
 - 입학사무처: 010-2461-1718, 010-7323-4641, 070-4369-7656
 - hebronschool@hanmail.net
 - (우)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2길 168-66 헤브론원형학교 (쿠 시온수양관)

책임교사를 위한 교육백서

GPM 도서

값 8,000원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해 헤브론원형학교는 교육의 주체를 교사, 책임교사로 명명된 부모, 신앙의 터전인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땅의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용감하게 자신을 드러 순종하는 순종의 전문가, 용감한 정예병으로 자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의 역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사, 로고미션 대표)

“책임교사로, 교육선교사로 각각 헌신하여,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마음마다 동네마다, 종족마다, 나라마다 증거하고, 거짓과 탐욕, 어둠과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자녀들이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길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로 쓴(주홍글씨), <책임교사를 위한 교육백서>의 일독을 강추합니다.”
장갑덕 목사(대전 카이스트교회)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boaz.co.kr



부들부들 떨면서 순종을 선택했다

복음선교관학교에서 주님은 내게 머릿속에서 뚝뚝 떨어다니던 개념들을 내 수준에 맞게 정리해 주셨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은 아심이니라”(창 3:5) 나는 그동안 이 말씀을 지식적인 수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눈이 생긴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강의를 통해 이것을 존재적인 관점에서 봐야 함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의 기준을 너 스스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야. 너의 생각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거야. 곧 내가 너의 주인이 된다.”이다.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문제의 근원이다. 스스로 옳다고 기준을 정하고 그것으로 남을, 때로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기 의, 자기 옳음을 주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이 실제된다



일러스트=고은선

는 말은,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됐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7살짜리 아이하고도 서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싸운다. 꼭 내 의를 분노를 쏟아내고 나서야 생각나는 십자가, 비참한 그때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은 또 십자가다. 그렇게 나의 어떠한 옳음도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루는 푸드마켓을 이용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다. 그곳에서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점수를 매월 받아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 그날은 전월에 남은 점수가 이월된다는 말을 듣고 남은 점수를 사용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 당시 이월 안

내를 해줬던 직원은 없었다. 다른 직원에게 이월 얘기를 하니 이월은 안 된다고 했다. 또 이 내용을 처음부터 고지했다고 말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처음부터 고지를 했다는 거짓말이 마음에 걸렸고 직원의 불친절하고 무시하는 태도에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나도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언성이 높아졌다.

마켓을 나오려는데 그 직원이 내게 “거기는 기독교요?”라고 물었다. 내가 누군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 순간 인신공격을 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여러 감정이 들었다.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주님 얼굴에

먹칠한 거 같아서 괴로웠다. 나를 말리지 않았던 남편까지 원망이 되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나밖에 모르는 옛 자아의 모습으로 반응해버린 것에 낙심이 되었다. 괴로운 나날을 지나는데 주님은 사과할 마음을 주시고 순종을 결단하게 하셨다. 한 주가 지나고 굴 한 상자를 사 들고 푸드마켓으로 갔다. 그 직원은 자리에 없었다. 다른 직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무례했던 것을 사과했다. 사과하는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어려웠지만 순종하게 하셨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순종이었는데, 극적인 화해는 아니었지만 부들부들 떨면서도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던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주님이 하셨다!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결국 주님이 나를 순종하게 만드시니 너무나 안전하다. 이 평안과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열방의 영혼들에게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한다.

[GNPNEWS]

장미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 전화(1670-3160)가 진행한 '신앙 상담 시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주제로 열린 상담자 세미나(강사 권서영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관계 망상, 종교 망상... 병원 도움도 유익

+ 신앙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14)

조현병의 흔한 증상 중 하나는 망상이다. 망상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다. 현실에 대해 자신만의 추론에 근거하여 혼자만의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 믿음의 내용은 비현실적이며 비합리적이다. 근거 없이 그저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 뒷받침된 것들이다. 주변에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논거로 설득해도 그 사람의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처럼 괴상한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좌지우지하고 가치, 판단, 행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일상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때, 이것을 망상이라고 한다.

그 종류는 다양하다. 먼저 관계 망상이 있다. 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자신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 목소리, 옷차림 등을 보고 자신과 연관된 것인양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 길거리의 현수막을 보고 '저 현수막이 나한테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어.'라고 생각한다. 목사님이 단순히 예화로 설교한 것을 가지고 '지금 다 나한테 하는 얘기가야.'라고 여긴다. 신문 방송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기사나 사건 등의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관계 망상은 다른 망상과 섞여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관계 망상과 종교 망상이 같이 있는 경우다. 채팅방에서 모르는 여자가 '친구 구해요.'라며 자신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자. 이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약속장소에 그 여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죄를 지었다.'라고 해석한다.

종교 망상은 자신이 속한 종교적 배경에 근거 아래서도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자신과 주변에 괴로움이나 위협을 야기하는 망상이다. 이때 우리는 '이 사람은 정말 사탄의 놀림이 대단하거나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증상은 사라진다. 이는 정신 의학적인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다. <계속> [GNPNEWS]



북송 탈북민 “북송할 바에는 죽여달라”

한반도의 북송통일과 부흥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읽고 이 땅을 위해 기도를 요청한다. <편집자>
“저희 모자를 평생 감옥에 가둬도 좋습니다. 북송시킬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세요.” 18살에 중국으로 팔려와 다시 북송된 한 탈북

여성의 이야기를 최근 데일리NK가 전했다. 탈북 여성 이모씨는 중국인 남성이 사 고로 사망한 뒤 또다시 인신 매매 위기에 놓이자 세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도망쳤다. 이후 농촌, 공장, 건설장 할 것 없이 생계 벌이에 뛰어들었던 이 여성은 2018년 결국 공안에 붙잡혔다. 이씨는 북송될 위기에 놓였고 ‘돌려보

내지 말아달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북송되면 자신은 비법월경죄로 교화소에 가게 될 텐데 아이는 누가 키우느냐?’면서 사정사정했다. 한 간부는 “너희 북한 사람들이

북송되면 죽느니만 못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 다 안다. 여기서 내가 눈감아 줄 수 있지만 중국에서 거처와 신분도 없이 더 버티기는 어렵다. 이 지역을 무조건 떠

나고 살길을 찾아라.”고 했고, 아들은 초등학교에 맡겨졌다. 이씨는 형기를 1년도 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영양실조에 걸려 교화소 안에서 사망했다. [GNPNEWS]



▲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압록강. © 복음기도신문

북한이 최우선 중점 사업으로 평양과 지방 도시의 살림집 건설을 내세우면서 수많은 군인과 대학생들을 동원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난 19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평안북도 여단 20대 청년 3명이 야간작업을 하던 중 차량

에서 쏟아진 골재에 파묻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철야 전투로 잠을 자지 못해 청년 건설자들이 총막공사 중 추락하거나 목재에 치여 사망하는 등의 인명사고”라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청년 돌격대원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며 고된 노동

에 내몰리다가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안다.”며 “휴식도 없이 진행되는 과도한 건설과제 때문에 역울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밝혔다.

북중 국경지역의 소식통도 건설 사업에 동원된 노동자들이 냉난방 시설도 없는 임시 천막에서 추위와 더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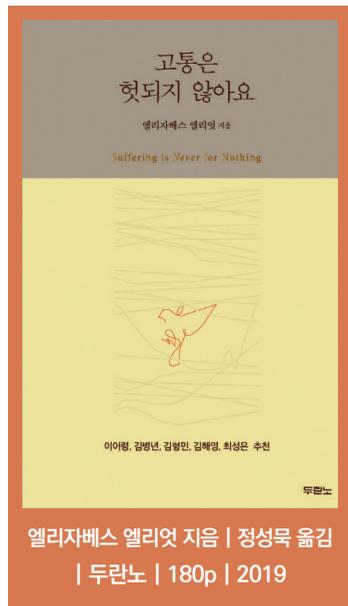
시달리고 있으며 식량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물과 음식도 스스로 가져와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집단적인 영양결핍 증세가 나타나고, 비위생적 환경 탓에 옴이나 폐 질환 등 질병에 걸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NPNEWS]

北 건설 사업 현장에서 군인·대학생 인명사고 속출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엘리자베스 엘리엇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고통은 주님을 알게 되는 선물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했다. 그 여섯 차례의 강연이 책으로 나왔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 상실의 아픔을 겪

은 그녀의 고난의 깊이가 어마했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십자가의 역설적 의미를 더욱 강조했다. 자신이 경험한 고난 자체보다 그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증언하고 있었기에 참 놀라웠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선교사 가정에 둘째로 태어났다. 그녀의 집은 늘 선교사들로 북적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식탁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의 삶과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짐 엘리엇과 결혼한 그녀는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와오라니 인디언 지역에서 남편을 잃는다. 2년 후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그 부족의 문자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현지인의 죽음을 겪으면서 그녀는 한참을 “왜 그렇게 하셔야 됐나요?”라며 절망하기도 했다. 짐이 죽은 지 16년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 한 신학자와 두 번째 결혼을 한다. 두 번째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주님 벌써 한번 겪게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제게서 첫 남편 집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제 남편을 데려가실 수 없어요!”라며 절규했다. 그녀는 두 번째 남편도 암으로 떠나보냈다. 그리고 세 번째 남편과 지내던 중 자신도 치매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후, 그녀도 2015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짐의 죽음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다. 고난은 그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 준 필수불가결한 도구였다. 그리고 남편들의 죽음을 이겨 낸 진짜 열쇠는 ‘수용’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끊임없이 되새겼고, 매일 같이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약속을 주셨다. “나를 믿으렴, 나를 믿어라.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네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은

‘수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구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차원, 다른 시각, 다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상관 없이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라 고백한다. 영원의 시각이 아니어서는 말이 되지 않는 고백을 하는 그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죽이는 것들에 감사하면 희미하게나마 그것들을 선물로 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셨냐?고 물었다고 한다. “외로움을 다룬 적이 없었어요. 다룰 수도 없고요. 단지 외로움을 다룰 수 있는 분께 맡길 뿐입니다.” 다시 말해, 외로움이 그녀가 드릴 제물이 되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좋은 것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난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신다고 말한다. 하나님께 내 슬픔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 내 상실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께 내 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주신다. 하나님께 내 죽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신다는 위대한 십자가의 원칙을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믿음의 길에 고난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지만, 고난을 인내하는 정도로 생각하던 나에게 고난과 고통 그 자체를 주님께 드릴 때 하늘의 것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그 진리를 더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 이제 고통을 끝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 삶에 허락된 모든 것들, 심지어 고난과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제물이 됨이 정말 아멘이다. 고통은 헛되지 않기에, 고통은 주님을 알게 되는 선물이기에. [GNPNEWS]

정준영 선교사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북 평남 순천시, 새벽예배 드리던 지하교인 5명 체포돼

동암리 지하교인, 1997년과 2005년에도 적발돼 정치범 수용소로



▲ 영화 속에서 북한 지하교인들이 정보기관원에 의해 끌려가는 장면. 출처: 영화 '상철'의 한 장면.

최근 북한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예배를 드리던 지하교회 교인들이 국가보위부에 체포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 19일 보도했다.

그동안 북한에 지하교회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북녘땅에 신실한 기독교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월 마지막 주말(30일) 새벽 5시경, 순천시

동암리에서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올리던 다섯 명의 주민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국가보위부 성원들에게 하나님을 믿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4월 마지막 주일(30일) 지하교회 예배가 진행된 장소는 동암리에 살고 있는 한 농민의 자택이며 예수를 찬양하며 예배하던 다섯 명의 주민들은 먼 친척 관계로 알려졌다. 다만 체포된 사람들 중 직계 가족은 없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의 현지 소식통

에 따르면, 주말 새벽마다 동암리 마을에서 여러 명의 주민들이 모인다는 것을 정보원(보위부가 심어놓은 스파이)이 보위부에 보고했고, 이에 지역 보위부 요원들이 잠복해 있다가 예배 현장을 급습했다.

소식통은 “예배 현장에서 수십 개의 소책자 성경을 회수하고 예배 참가자들도 잡아갔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곳에서 지하교회 교인들이 적발된 사건은 1997년과 2005년에도 있었으며, 당시에도 교인들이 체포돼 수용소

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암리는 농민들의 이주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북한에서 전형적인 집성촌으로, 해방 전 일제시대부터 큰 교회가 있어 지역 주민들의 신앙심의 뿌리가 깊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예배 현장이 발각되어 보위부에 잡혀간 주민들은 성경책 출처를 대라는 조사에 ‘죽어도 예수님을 불지 않겠다.’고 버텼다.”고 전했다. 이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달 초 미 국무부는 2022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을 처형, 고문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 연방정부 산하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이달 초 발표한 2023년도 연례보고서에서도 북한을 포함한 17개국이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옹인하고 있다.”며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GNPNEWS]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3. 5. 6 ~ 5. 23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김경선 김선례 김선희 김성훈 김수미 김숙자 김신애 김원숙 김형숙 박성규 신혜경 이삼연 이영선 이은주 이장원 이정원 이지수 장근혜 정금자 정옥영 정호진 조세라 차인순 최근희 최임주 홍고집 무명

교회 및 단체

겨자씨선교회 고현교회 대구서현교회고정팀 빛과함께하는교회 새순교회 샘물교회 웹 열매교회 참종양터라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재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월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